

어린이포교 '교두보' 지키자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 '폐쇄위기' 간신히 모면

해마다 신입생 감소, '불교계 유일 시설...관심과 지원'을

불교계 유일의 보육교사 양성기관 중앙승가대학교 보육교사 교육원이 신입생 미달로 허가 취소 상황에 처했다가 위기를 모면했다.

1991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교사 위탁교육시설 제3호로 지정 위탁받은 보육교사 교육원은 15년 동안 3천여 명의 보육교사와 원장 등을 배출했다. 그러나 2001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관계당국으로부터 1차 경고를 받았으며, 2005년도에 80명의 신입생을 받아 2차 경고를 받았다.

신입생 정원을 못 채울 경우 다음 해 정원에서 50명을 감축시킨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에는 150명의 신입생만 받으면 됐지만, 접수 마감일인 3월 20일까지 54명밖에 신청하지 않았다. 150명 중 절반인 75명 이상의 신입생을 받지 못해 3차 경고로 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지만, 불교계 유일의 보육교사 양성기관이라

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장에서 허가 취소를 보류했다.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교육원을 졸업할 경우 국가자격증인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해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있다. 또 실무경력 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도 있고, 방송통신대학교 등 일부 대학 유아교육과 및 사회복지학과 특별전형도 가능하다. 재학 중에도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취업할 수 있는 등의 특전이 있지만 불자들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육교사 교육원장 자용 스님은 "87개 보육교사 양성 기관 중 50개 이상이 기독교 기관이며 이들 기관의 경우 교인들을 의무적으로 보육교사 교육원 등에 입학시키며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승가대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종단과 불자들이

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자용 스님은 또 "조계종 교육원측과 3급 승가고시 때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작업을 논의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타지 않을지 우려해 신입생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육교사 교육원 모집대상은 고졸 이상의 학력 인정자(검정고시포함), 대학에서 타 과목 전공자 등이다. 수업시간은 주간반의 경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까지, 야간반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전형은 서류 및 면접으로 이뤄지며 입학원서와 최종학점증명서 1부, 반명함판 사진 4매,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를 첨부해 교학과(02-929-5004)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사리는 문화재 아니다"

문화재청, 현등사 소송서 사실조회 회신

삼성측 '사리·사리구는 공예' 주장 힘 잃어

'사리는 문화재가 아니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이 조계종 현등사(주지 조계)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3중석탑 사리함 일체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리함 단독으로 문화재로 지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사실조회 회보를 통해 '사리는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당대의 문화활동의 소산인 문화재와는 거리가 있다'며 '사리함'과 '사리'를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사실조회 회보를 통해 '사리는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당대의 문화활동의 소산인 문화재와는 거리가 있다'며 '사리함'과 '사리'를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이 같은 입장은 사리가 죽은 자의 신체 일부이며 불교의 종교적인 신앙대상이라고

판으로 사고 팔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 현등사가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삼성문화재단측은 '사리나 사리구는 공예미술품의 극치를 보여주는 예술품으로 그 자체로 상당한 문화, 종교 및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등사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덕수는 빠른 시일내에 변론기일을 정해 심리를 계속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등사측 사건 진행을 맞고 있는 불전사 해문 스님은 "사리함, 사리구, 사리호는 사리와 한몸이며 서로 분리될 수 없다"며 "삼성문화재단이 지금이라도 현등사 3중 석탑 사리함 일체를 부처님과 이전한 불자에게 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모든 법 개정' 다음 회기로...

조계종 임시총회, 2005년도 결산 승인



선거법 등 각종 중헌·중법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제170회 조계종 임시중앙총회가 모든 개정법안을 차기로 이월한 채 3월 22일 끝났다.

3월 20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임시중앙총회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165억여 원으로 보고 받고, 세입 174억여 원, 세출 143억여 원의 결산내역을 승인했다. 이밖에 시설특별, 중앙승가대 이전, 신도교무금, 승려노후복지 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중앙총무기관 직영·특별 분담금 사찰에 대한 중정 감사 보고 건 등도 집행부가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했다.

그러나 제13대 중앙총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중헌중법개정은 끝내 이뤄지지 못한 채, 각 정책모임 대표들이 '7월 중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기존의 중헌중법특위를 해체하고 '중헌중법개정기초위원회(항적 장적 정안 이암 덕문 효림 광조 도자 윤달 스님)'를 꾸려 7월 임시총회에서 반드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서 상정된 개정법안은 중헌 9조 3항(사찰사찰 및 법인의 종단등록 의무규정), 총무원장 선거법, 총무원법, 사찰사찰법, 총림법, 산중총회법 등 모두 11건이었다. 영축총림 방장 추대의 건은 조우

스님의 사의로 폐기됐으며, 재판 스님의 원의원 사임에 따라 새로 도문, 대일, 현해, 명선, 월주, 정무 스님 등 6명이 추천됐다. 호법부장 서리였던 도진 스님의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또 총림확고관리위원을 사임한 광조 정안 의원 정념 도진 스님의 후임에 자체 도완 법안 효림 법보 스님이 추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와 승가학원의 이사후보추천 동의의 건은 총림학교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중앙총회에서는 국회에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방송위원회에는 경인민방사업자 선정 관련 종교적 형평성을 기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7월경 총회 열어 중법 개정 총회의장 법등 스님 밝혀

한편, 총회의장 법등 스님은 폐회 다음날인 23일 기자회견에서 "중헌중법 개정안이 차기로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7월 임시총회에서는 총무원장 선거법 등 관련법안 등을 개정해 종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11월 임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13대 중앙총회의 모습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조용수 기자

사찰운영모델 찾기 주력

실천승가회 정기총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회장 성관·효림)는 3월 24일 서울 수곡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찰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찾는 연구를 위해 주요사업으로 확정했다. 이 연구는 신도조직의 효과적 운영과 재정확충 방안 등도 포함해 진행된다.

실천불교승가회는 또 지난 2월 캄보디아 시엠펙에 준공한 보육·교육

시설 BWC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후원 가족모임도 결정하기로 했다.

실천불교승가회는 고불총림 유나지선 스님과 조계종 교육원장 정화 스님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부의장에 조계종 교육부장 퇴후 스님, 중앙총회의원 장적·법안 스님, 불학연구소장 현종 스님을 선출했다. 또 집행위원장 도진, 총책위원장 일근, 평화통일위원장 범경, 국제불교위원장 부경, NGO환경위원장 정휴 스님을 선임했다. 박봉영 기자

동국대 이사에 정념 스님

범어 스님은 보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에 정념 스님(평창 월정사 주지)이 선임됐다. 그러나 범어 스님(고창 선운사 주지)은 교육경력 문제로 보류됐다.

동국대 이사회는 3월 21일 동국대 본관에서 제217차 이사회를 열고 현 이사장 현해 스님 후임으로 추천된 정념·도완 스님 중 정념 스님을 만장일치 차기 이사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이사가 차관 스님 후임으로 추천된 범어·보원 스님 중 범어 스님의 교육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이사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후임으로 교육경력 3년 이상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결정이다.

사립학교법 제21조 3항에 따르면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3명 이사 중 11명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관음불상 가짜주장 단호히 대처

태고종 총무원·선암사 "검찰조사결과 존중"

선암사 관음불상 사건과 관련해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승려들이 '가짜 관음불상'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태고종 총무원과 태고총림 선암사는 3월 22일 선암사 만세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교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있을 때는 종단적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원과 선암사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모조품이 아니라는 결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관음상이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종단과 선암사를 악의적으로 위해(危害)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암사 목조관음상은 2004년 가짜 의혹이 제기되어 진정과 고소가 잇달아 검찰 수사도 진행됐으며 지난해 1월 2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 등에 근거 불상이 모조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김두식 기자

조계종 새 스님 368명 탄생

제26회 구족계 수계산림 병행

조계종은 불기2550년 구족계 수계산림 회향식을 3월 21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봉행했다.

이번 제26회 구족계 수계산림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서울 강남 불은사가 가사불사를 통해 제자한 삼보문 문양이 들어간 종단공식 가사를 정식스님이 된 368명 전당으로 15일부터 1주일 동안 진행했다.

조용수 기자

"경인민방 사업자선정 종교편향 우려"

학담 스님 방송위에 중앙총회 성명 전달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에 대한 불교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총회 사회문화위원장 학담 스님이 3월 24일 오전 9시 방송위원회에 중앙총회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학담 스님은 이날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에서 특정종교적 편향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방송사 선정을 반대한다"는 불교계의 입장을 표출수사무총장에게 전했다. 표 사무총장은 "답변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현재도 현격히 벌어져 있는 종교간 형평성을 고려한 투명한 방법과 원

칙으로 가장 적합한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교계의 우려를 가늠이 되새겨 임기 말에 졸속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기보다는 차기 방송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기독교방송(CBS)측은 자신들이 주도했던 tvT콘서트사업이 지난 1차 사업자공모에 탈락하자 영안모자, 경남기업 등을 영입해 2차 경인방송사업자 공모에서 나서고 있다. 방송위는 오는 27일 2차 공모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현 방송위원회의 임기인 5월9일 안에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수 기자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2006 청정운동 발대식

* 일 시 : 2006년 3월 29일(수요일, 음력 초하루),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 조계사

- 법회 당일 청정운동 실행수첩과 홍보 스티커를 나누어 드립니다.

'청정운동'은 불자다운 삶을 위해 나부터,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가자는 실행개혁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2006년도에는 '청정운동 실천지침'이 기록된 실행수첩을 배포하여 동참 불자 개개인이 매일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점검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하고자 합니다.

선언문

오늘날 이 땅의 겨레는 인간 본연의 청정함을 깨닫지 못하여 화합의 가치를 잃고, 지혜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다.

부와 권력의 끝없는 추구에서 기인한 물질만능의 사고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극도의 이기주의를 만연하게 하고, 이로부터 오는 불신과 대립, 빈부의 심각한 양극화는 이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내몰고 있다.

오늘 우리는 결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그것은 몸과 마음을 바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올바른 사회질서를 선도하여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커다란 불꽃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것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뜻 생명과 더불어 참되라 일러주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여실히 구현함입니다.

이러한 것이 부처님 본래의 가르치심이었고, 우리 겨레가 수천 년을 지켜온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자각하며, "청정운동"의 대열에 모두 함께 매진할 것을 선언한다.

실천지침

-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였는가.
-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였는가.
-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었는가.
- 오늘 내가 지은 잘못을 참회하였는가.
- 오늘 남이 한 일을 함께 기뻐하였는가.
- 오늘 경전을 한 줄이라도 읽었는가.
-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거스르지 않았는가.
-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화향(嚮)하였는가.

(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홍 승 희

청정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 송 석 구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청정운동추진위원회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Tel 02-719-2606 Fax 02-719-5052 www.kbpf.org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mahamall.co.kr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연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